"차라리 안 만나는게 좋았을 걸…"

이명박-박근혜 靑 회동 후 親李-親朴측 불신 심화

'당 대표 제안' 진실공방에 정치력 부재 비판 확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간의 회동 후 양 측간 감정이 더욱 악화하는 양상이다.

지난 10일 두 지도자 간 회동에서 이 대통령이 박 전 대표에게 당 대표직을 제의했는지 여부를 두고 청와대와 박 전 대표 측의 가시 돋친 설전은 13일 강도를 더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을 옹졸하게 만들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박 전 대표 측근은 "이렇게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인신 모독할 수 있느냐"고 말할 정도다.

때문에 "여야 영수회담도 이보다는 나았을 것", "세 번의 회동 중 최악이었던 것 같다"는 평가가 당 안팎에서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당을 맡아 달라'는 식으로 더 구체적으로 제안한 게 사실이지만, 박 전 대표가 그런 건 없었다고 딱 잘라 말하는 상황이라 '중심이 돼 달라' 정도만 전한 것"이라면서 "(대표직을 직접 제의했다는 얘기는) 진실은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박측 의원들이 말하는 것을 봐라. 너무 심하지 않으냐. 진실은 있는데 마냥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서 우리가 밝힌 것으로 봐달라"고도 했다.

반면, 박 전 대표의 한 측근은 "회동한 지 이틀이나 지나서, 그것도 의원외교 활동 중인 국내에 없는 박 전 대표를 향해 뒤에서 이럴 수 있느냐"면서 "청와대 참모들이 한심하고 이것밖에 안 되느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불신 심화를 두고 양측 모두의 정치력 빈곤이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총선 후 친이측 일각에서는 "박 전 대표라는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내부에서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의 정치력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친이 측에서는 청와대 참모진과 정무라인 등에 대한 불만까지 표출하고 있다. 친박측 내에서도 박 전 대표가 너무 심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6·4 재보궐선거' 공천 어떻게 돼 가나

영광군수 후보 정기호씨, 광양 다선거구 박봉묵씨 확정

광주 남구 구의원 공천 난항…시의원은 여론조사후 결정

6·4 재보궐선거가 20여 일 밖에 남지 않았으나 광주·전남지역 후보자 선정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13일 통합민주당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광양 다선거구, 광주 남구 가 선거구(이상 기초의원), 영광군수, 광주 남구 제1선거구(광역의원) 등 4개 지역. 민주당은 이 중 지난 7일 광양 다선거구에 박봉묵 전 광양시청 세정과장, 지난 9일 영광군수 후보에 정기호 영광기독병원장을 후보로 선출했다.

하지만, 남구 제1선거구 시의원 후보와 남구 가선거구 구의원 후보는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구의원 후보의 경우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는 공심위와 후보를 내야 한다는 최고위원회의 의견이 엇갈려 후보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남구 시의원 후보 선정은 지난 2주 동안 공천심사위원회 내부의 의견 차이로 논란을 거듭하다가 결국 여론조사로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천을 신청한 인사는 김만곤·김선문·김시곤·안원균·윤징하·이창호씨 등 6명. 공천심사위원회는 두 번에 걸친 지역 여론 실사와 면접 등을 통해 지난 8일 김선문·이창호·김시곤씨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후보를 결정키로 했다.

다른 후보들은 해당 행위와 경쟁력 등을 이유로, 김만곤씨의 경우 구의원 보궐 선거의 원인 제공자라는 이유로 각각 후보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결정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취소됐다. 남구의 지병문 의원이 김만곤씨가 제외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때문이었다.

공심위는 이에 세 번째로 실사단을 파견했다. 이번에는 보다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 12일 오후 김선문씨를 후보로 선정, 13일 최고위원회에 올렸다.

공심위는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 강운태 후보를 도와서 해당행위를 한 후보와 구의원직을 던져 재보궐 선거를 다시 치르게 한 후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 중 당 공헌도와 경쟁력 등을 검토, 김선문씨를 후보로 뽑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에도 지병문 의원이 공심위 결정을 뒤집었다. 지 의원은 최고위원회에 들어가 당원 여론과 경쟁력 등을 이유로 김만곤씨에게 공천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역 의원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최고위원회의는 13일 오전 결국 모든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서 후보를 최종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광주 남구의회 유정심 의장 등 6명의 구의원은 이날 시의원 후보를 공천하지 말 것을 중앙당에 건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시중 출석 거부 방통위 파행 거듭

민주 '탄핵소추안' 강행키로

13일 국회 문화관광위 전체회의에서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 방통위 관계자들의 출석 거부와 방송위 부위원장 선임 문제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방통위가 "현행 국회법상 소관 국회 상임위가 불분명한데다 아직 조직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참을 통보한 것을 두고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 "형님 권력의 국회 무시"라며 파상공세를 편 것.

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방통위원들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가결시킨 끝에 최 위원장 등 방통위원들이 오후 들어 참석, 회의가 속개됐으나 야당이 최 위원장과 송도균 부위원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여당이 이를 반대하는 등 공방은 계속됐다.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방송.통신의 중립성을 위반하며 국회 위에 군림하는 '형님 위원회' 위원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 방통위 설치·운영법 등의 위반을 들어 차기 전체회의에서 최 위원장과 송 부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및 탄핵소추안을 강행키로 했다. /연합뉴스

민주 "美 쇠고기 수입 재협상하라"

통합민주당 손학규·박상천 대표와 김효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3일 국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즉각적인 재협상과 장관고시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靑 일부 수석, 문제 장관 교체해야"

한나라 공성진 의원 주장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13일 최근의 국정운영 난맥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청와대 일부 수석과 정부 부처 장관의 교체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공 의원은 이날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청와대 일부 수석들의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또 내각 장관들의 경우도 쇠고기 파동도 있고 청문회도 앞두고 있는데 법률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워야 하고 또 능력에 한계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대로 읍참마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 의원은 이어 "이런 것들이 한 두 달내로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 의원은 "정권 초기엔 정부의 위엄이 사회에 진동해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기대나 권위가 국민들에 크게 다가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 아무리 눈을 뜨고 봐도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사람에 문제가 있다면 사람을 바꾸고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제도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만간에 이명박 정부를 출범시킨 사람들이 다 모여 이런 문제를 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국현 대표, 검찰 출석 세번째 거부

수원지검 "직접 조사 불가피…강제구인 등 검토"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비례대표 이한정(47·구속기소) 당선자의 공천과 관련, "문국현 대표에게 13~14일 중 검찰에 나와줄 것을 요청했으나 일정상 어렵다며 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문 대표가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검찰 관계자는 "문 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거듭 밝히면서 "출석을 다시 요청할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 조사없이 기소할지, 아니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할지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창조한국당 채권을 매입한 이 당선자 측 지인 2명이 "이 당선자에게 속아 당채를 매입하게 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그 경위를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민주 '쇠고기 전략 진두지휘' 박홍수 총장 의식불명

심장마비 쓰러져…병원측 "현재 상태 불투명"

박홍수 통합민주당 사무총장이 13일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다.

박 총장은 이날 오전 6시30분께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병원 측은 박 총장의 병명과 관련, 심장이 수축되지 않아 혈액 공급이 멎는 심정지라고 진단했고 평소에 지병으로 갖고 있던 심장병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했다.

박 총장은 1978년 경상대 임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한국농업경영인 남해군 회장을 지냈으며 4년 뒤 한국농업경영인 경상남도 회장을 역임하는 등 농업인으로 평생을 살았다.

박 총장은 2002~2003년 세계농업관련 NGO 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며 농촌활동에도 헌신했고 2004년 열린우리당 농민위원장을 거쳐 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을 지냈다.

박 총장은 열린우리당 제4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2005~2007년 농림부장관을 역임했으며 총선 직후인 지난달 11일 신계륜 전 사무총장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사무총장직에 임명됐다.

박 총장은 지난 7일 쇠고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부·여당 관계자들과 설전을 벌이는 등 당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략'을 진두지휘해왔다.

병원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상태가 불투명하다"며 "조심스럽지만 상당히 안좋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